

# 축사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오늘 우리 조합 제22차 총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부 정삼정 팀장님과 홍평우 명예회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조합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찬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예상되며, 건설환경 또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일반건설회사의 손실분까지 떠안고 있는 우리 업계는 정부가 민간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끝없는 추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에 분당규모의 신도시 2개 지구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가뭄 속의 단비처럼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우리 업계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일반과 전문 겸업제한이 폐지될 경우 기존의 하도급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문간 공동도급, CM에 의한 공종별 분리발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조합은 '조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합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업무편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창립대비 자본금이 166%, 조합원 수가 70% 증가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보증수수료율 인하 또는 신용거래 전면실시 등으로 신용사회 구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은 IT서비스 혁신으로 전자보증 활성화, 신용평가 모델의 끊임없는 개선 등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 중심의 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재무구조 확보를 통한 조합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합원사들로부터 사랑받는 조합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총회가 조합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총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의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